

3대째 액자 만드는 광주 '구씨네' 구희봉 대표

“손님 아닌 그림에 맞는 액자 만듭니다”

화가의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액자다. 액자에 따라 그림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화가들이 사랑하는 액자와 그 액자를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다. 광주에서 3대째 액자와 캔버스를 제작하고 있는 '구씨네' 구희봉(57) 대표는 지역 화가들에게 가장 신망이 두터운 장인이다.

지난 11일 찾은 광주 예술의 거리 '구씨네'에는 말려 교향곡 5번 3악장이 흐르고 있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구 대표는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그림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음악은 똑같이 감동을 준다”고 말했다. 클래식은 그가 작업을 하거나 잠시 쉴 때 편하게 즐기는 취미 중 하나다.

그림 알아야 좋은 액자 만들어

지역 화가들에 신망 갖춘 장인

9평 남짓한 가게에는 오송운 화백 작품을 비롯해 수많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중앙에는 그가 무지개색을 사용해 그린 '희망'이라는 작품도 전시돼 있다.

어린 시절 그는 자연스레 그림을 접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에서 액자를 만드는 사람은 목수였던 할아버지와 부친(78년 작고)이 유일했다. 때문에 구 대표 집에는 오지호 화백과 양수아 화백 등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화가들의 발걸음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오지호 선생님이 집에 오시면 액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래서 3~4살 때부터 어깨 너머로 그림을 배웠죠. 하지만 그림에는 소질이 없었어요.”

30대까지만 하더라도 할아버지나 아버지 같은 목수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도 원치 않으셨다. 집은 넉넉하지 못했고 학교도 마치지 못한 형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액자를 만들며 화비를 내주었다.

30대 후반 무렵 생각이 바뀌었다. 자식들을 낳고 나니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됐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형을 찾아가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겠다고 했다.

“아버지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형님을 찾아갔는데 꽤 심한 눈이라며 끝까지 가르쳐주시지는 않았죠. 하지만 자신이 있었어요. 독학으로 액자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가난했던 아버지는 돈을 물려주시지 않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물려주셨어요. 제 목숨에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것이 머리와 가슴에 있었습니까.”

구 대표는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 1993년 광주여고 정문에 '서진(徐進)액자'를 열었다. 빨리 만들어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액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할 서(徐)자'를 썼다. 오로지 품질에만 신경을 썼다. 지금 가게 이름은 8년 전에 바꾼 것이다.

얼마후 오지호 화백의 아들 오송운 화백이 지나던 길에 들러 “가게를 열었으면 연



3대째 액자와 캔버스를 만들고 있는 '구씨네' 구희봉 대표는 지역 화가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장인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부친, 오지호·양수아 화백과 인연

오송운 화백, 구대표 액자만 고집

“처음에는 선생님께 구지람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내 기술자'라며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셨어요. 오송운 선생님이 프랑스에 가셨을 때 '한국에도 이런 액자와 캔버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오송운 화백과의 인연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오는 23일까지 서울 가나아트홀에서 열리는 '오송운 화백 회고전' 전시작품의 액자도 모두 그의 솜씨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다. 하지만 수차례 나무를 깎고, 온도, 습도, 천의 감도, 물감의 농도를 머리와 가슴으로 익혔다. 실제로 그의 액자는 틈이 보이지 않고, 무게는

상당히 가볍다. 또 액자 네 귀퉁이의 나무 무늬가 일치하며 표면은 믿기지 않을 만큼 고르다. 손으로 느껴지며 수백 차례의 사포질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손에는 지문 하나도 없다.

“제가 만드는 액자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만드는 과정은 같을 수 있지만 정성과 노후화가 다릅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얼마만큼 정성을 쏟느냐가 문제겠지요. 액자는 손님의 요구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작품을 보고 제가 액자를 구상한 뒤 손님과 상의합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냥 돌려보냅니다. 작품을 액자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림에 액자를 써주는 것이요. 저는 액자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때문에 누군가 제가 만든 액자에 흠집을 내면 화가 나기도 해요.”

액자는 사람의 옷과 같다는 것이 구 대표의 지론이다. 사람에게도 걸맞는 옷이 있듯, 그림에도 어울리는 액자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립합창단 임한귀 지휘자 취임 첫 연주회

오늘 문예회관

“하이든 ‘천지창조’... 희망으로 출발합니다”

2년간 상임지휘자 없이 운영됐던 광주시립합창단이 새로운 수장을 맞아 2014년 첫 연주회를 갖는다. 취임 연주회를 앞둔 임한귀 상임지휘자는 11일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13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취임연주회의 레퍼토리는 헨델의 ‘메시아’, 멘델스존의 ‘엘리아’와 함께 3대 오라토리오로 불리는 하이든의 ‘천지창조’다.

“희망·화합으로 단원 이끌 것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메시아’ 윤행주와 무대 준비



를 꾸미며 10월에는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을 공연한다. 마지막 무대는 합창음악의 백미로 꼽히는 헨델의 ‘메시아’다.

“대학 다닐 때 정경화씨 독주회에 간 적이 있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 역시 세계적인 음악가라는 생각이 든 한편으로 약기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였으면 더 큰 감동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다. 사람 목소리는 감성을 가지고 있어 더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다. 그게 성악의 매력이다. 또 합창은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목소리와 상대방의 목소리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늘 상대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사회에서 강조하는 소통의 문제이기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다. 공동 작업을 통해 파워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합창의 매력이다.”

“세월 출신으로 서울대 성악과(바리톤)를 졸업한 임 지휘자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합창 대학 합창지휘 석사, 미국 템피스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올 한해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에서도 강의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독일문화원 광주어학센터’

내일 전남대학교에서 개원

막시밀리안 헤커 축하공연

주한 독일문화원 광주어학센터가 전남대학교에 문을 연다.

11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주한 독일문화원 광주어학센터가 14일 오후 4시30분 인문대 3호관 소강당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독일문화원 광주어학센터는 전남대 구성원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독일어강좌를 진행하는 물론 독일 관련 문화 행사와 출판물, 디지털자료 비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옛 전남대박물관(‘홍도’ 뒤편) 자리에 들어선 독일문화원 광주어학센터는 정식 개원에 앞서 지난 1월과 2월 시범강좌를 운영, 수업진행방식과 단계별 난이도 등을 미리 점검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로프 마파엘(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 브루노 그로스(Dr. Bruno Gross) 독일문화원 본부 부총재, 슈테판 드라이어(Dr. Stefan Dreyer) 독일문화원 동아시아지역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원식 행사 후 오후 7시30분부터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3호관 예향홀에서 독일의 팝 뮤지션 막시밀리안 헤커(Maximilian Hecker)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문의 062-530-0810.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옛 전남대박물관 자리에 들어선 독일문화원 광주어학센터.

광주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